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77년 설립 당시부터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2024년까지 47년간 아산재단이 지원한 장학생 수는 3만 6,889명에 달한다.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매년 2월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으로 아산장학생 자치모임인 정담회 소모임 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간담회,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생·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 대학생 봉사캠프가 진행됐다.

나눔정신을 키운 대학생 봉사캠프

초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된 7월 초, 한 무리의 청년들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시립 복지시설을 찾았다. 2024년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이 1박 2일 봉사캠프에 참여한 것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나눔정신을 키우고 장학생 상호간 친

목을 쌓기 위해 개최된 이날 봉사캠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5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7월 4일부터 이틀간 열린 아산장학생 봉사캠프는 정신장애인지원센터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과 중증장애인시설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에서 진행됐다. 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피자·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활동을 준비했다. 대학생들은 보조로 참여해 강사의 설명에 따라 만들기를 도왔다. “장애인 분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라고 해서 조금 긴장했었어요. 그런데 다들 친절하고 유쾌한 분들이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체험도 재미있어서 장애인 분들보다 제가 더 신나게 한거 같아요.” 안정현 장학생의 소감이다.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집에서는 식사보조, 시설 청소와 산책보조 활동을 펼쳤다. 유태연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 분들도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산책과 사람을 좋아하는 저와 다를 것 없는 분들이었어요. 봉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시설 ‘은혜로운집’에서 장학생과 장애인이 피자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YMCA유스센터에서 조별 기념사진을 찍는 장학생들.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간담회에서 대학원 졸업생과 대학원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또 처음 만난 장학생들과 봉사를 하면서 빠르게 친해져서 즐거웠어요.”


둘째 날에는 경기도 고양시 YMCA유스센터에서 다양한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으로 구성된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선배, 학군단 동기도 만나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했습니다.” 김한겸 학생의 말이다.

의생명 장학생과 동문 간 교류의 장 마련

대학생 봉사캠프에 앞서 봄에는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을 위한 간담회가 두 차례 개최됐다. 학업에 방해되지 않게 토요일에 일정을 잡고,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진행했다. 4월 27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5월 11일에는 대전 동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학원생 21명이 참여했으며, 아산장학생 출신으로 대학원 졸업 후 연구소, 기업 등에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장학생 동문과의 대담도 마련됐다. 대학원생들은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연구실 생활에

간혀 지내다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장학생 동료들을 만날 수 있어 즐거웠어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동문 선배가 있어서 다양한 진로의 장단점을 듣고 깊이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의생명과학분야 장학생 중 참가 희망자를 선발해 재학 중인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어 모였다. 대학생들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대학원생의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산재단은 분기별로 1회 오프라인 모임을 갖도록 장려하고 있다.

아산재단은 앞으로도 아산장학생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장학생과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하며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글 편집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생명과학분야 대학 장학생이 대학원 장학생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실 투어활동에 참여했다.